

## 등록금투쟁 공동요구안으로 분출

### 합리적인 인상을 책정·학생참여 보장

9년 이상 매해 10%를 웃도는 등록금. 이런 어정쩡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학내에 번져가고 있다. 이에 양력 총학생회는 이젠 등록금 9%인하 투쟁, 복지예산투쟁에 매몰돼 한층로만 흐르는 등록금투쟁을 거부하며 구체적인 증거속에서 대학당국의 등록금 고율인상의 부당함을 일깨워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등무의 방학전환을 제기했다. 서

울캠퍼스 총학생회는 95년 예정신분서를 통해 대학예산성요령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과대장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개별과에서 앞으로의 등록금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부신하며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강의실 선전 포스터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서양언어 및문과는 대표부를 통해 방학과 현재 등록금 투쟁이 학생들속에

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 방중 1차 등록금투쟁을 추진하며 각과대별로 반지발송을 진행한 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서울캠퍼스와의 연대투쟁을 고안하며 함께 4가지 공동요구안 작성에 분주하다. 또한 양력 총학생회는 방중 등록금 인상과 관련 학생들의 의사를 취합하는 방안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의사가 배재된

부당한 등록금 책정을 막고 학생들에게 참여의 폭을 증진할 등록금조정위원회 구성, △교육직참여에 대한 시립학교법 규정을 대학당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4%안이 적당하다. △재정조성비용에 관한 내역은 대학당국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4가지 공동요구안을 대학당국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울캠퍼스 학원지주회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오성훈(인문·사학 4)군은 "기존의 등록금투쟁은 너무 당위적으로 접근시켜 학생들과 분리되어 상

층만의 투쟁으로 쓰러진 패배를 반복했다"라며 "이번 투쟁은 1만명 외대생들을 대동적으로 묶어내 한 목소리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벌어 반드시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라며 앞으로의 등록금 투쟁방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일(토)자한가례 신문에 의하면 외대의 등록금 납부율이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중에서 가장 낮은 64%를 기록한 사실이 실렸다. 또한 다가올 29일(금)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총권기대회와 동명휴업이 예정돼 있다.

정명수 기자

## 학부제 임시반 도입 진동

### 자연대·인문대 긍정적 검토

지난해 전적 도입된 학부제가 임시반 도입논란이 하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토) '이문·왕산 학부제 공동 투쟁 위원회'에서는 임시반 도입을 비롯한 4개 안을 대학당국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학교는 '학부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장실 양의방문을 통한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개선 반대에 부응해 임시반 도입을 받아들였다.

신입생들을 희망 전공·학과에 따라 조사해 현 학과 정원 수준으로 분반하여 학생회 활동을 유지시키고 학부제의 행정적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임시반은 학생과 대학당국간의 입장차이 특성학과와 관련 등이 드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학부제 거부 움직임으로 커지고 있다. 서울캠퍼스는 사회과학·상경 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희망 전공·학과 조사결과 사회과학계열은 신문반총학과로의 편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교수 사이에도 임시반을 과체제로 혼란하여, 미간이학과 교수들의 반발이 실제 사실상 이 방안에 결렬했다. 계열화를 실시하는 상경대 학생회장 김광수(무역 4)군은 "임시반을 통해 학부제의 모순들이 이미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학부제 교양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부제 유보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캠퍼스에서는 임시과 도입

방안에 대해 교수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희망전공 조사결과 서울캠퍼스처럼 일부 학과 편중현상이 드러났다. 한편 지난 수강신청일(28일)에는 대학당국이 임시반을 무시하고 좌위적으로 수강시간을 구성해 학생들의 미찰이 있어왔다. 이에 임시과 방안은 해당 단계의 결정으로 위임돼 자연대·인문대가 임시반을 채택했으나 나머지 단대는 미결이다.

이와 관련 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부제 시행 단계를 중심으로 학부제 전면 유보와 현정부의 모순된 교육 정책을 밝혀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박승기 기자

## 교육과정개정 최종 확정

### 교양·복수전공의 폭 넓혀

본고는 95년 정부의 5.31교육개혁안 발표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앞으로 10년내에 대학입학 자원이 감소할 것이며 대학시장이 개방이 이루어져 대학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학과편리나 마편에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지난 22 일(목) 목포에서 열린 전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교육과정개정의 기본원칙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점 이상, 학기별 최대수강 학점은 20학점으로 한다 △최소전공점수(전임제 이수학점의 25%)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복수전공의 기

회를 부여한다 △수업학점을 최소화하고 선택학점을 최대화한다 △학과간 전공교과의 교환교류를 인정한다 △신수과목을 제외한 선택교과목은 이수학과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등으로 대폭 개정하였다.

교양, 실용영어, 외국어 특별강좌, 부전공 및 복수전공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새 교육과정은 △199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현재 2,3,4학년은 현행 교과과정의 체제에 의해 졸업한다 △96학년도 이후 복학생은 복학생 전이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등의 적용세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울캠퍼스 경영을(교육학)학과 교수 교무처장은 "조속히 학기별 학점배분표 재조정연구와 학과별 재조정연구를 다시 해야한다"라며 덧붙여 "96년 6월 30일까지 추후 세부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오은진 기자



**입학식 부활** 지난 3월4일(월)에 울캠퍼스에서는 8년만에 부활된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양캠퍼스 총장은 축하사를 통해 "본교의 함께 세계지향적 미래지향적 자세로 실력과 지성을 연마하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입학식은 학생측 대표의 참석이 배제돼 '빈축 입학식'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지면 안내

당신의 졸업은 안전하기?.....3면  
-각년도 이어 올해도 '중복수강'으로 인해 졸업일수가 타기 빚이 많다.  
졸업을 부르는 '죽음'.....9면  
-두달동안 반강제적으로 죽어 간 9인의 죽음, 그 의미를 찾아본다.  
자전 전담형 '성' 아니다.....10면  
우리에게 바라는 점들.....11면  
-교육의 질과 등록금은 비례하고 있을까? 여기 저기서 사립대 재정부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독도는 우리 땅.....4면  
-독도문제를 통해 본 한·미·일 관계  
모닝글로리의 향포.....6면

## 변인사구

### 금단의 벽을 넘어

▲ 국한교 시절, 새책을 맞을 때면 먼저 제책 한가운데에 글을 그었던 기억이 있다. 글을 중심으로 넘어오는 풍류는 학용품, 심지어는 교과서까지도 거처였어 땀과 글이. 또 그 글이든 되찾기 위해 수없이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글을 넘어선 상태에 속해 눈감아주기만 하면 좋은 그 때부터 물도 없던 단박이 되곤 했다. 다시말해 "금과"는 서문에 대한 애착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나 할까?

▲ 남북은 50년동안 만날 수 없는 글을 그어 놓고 대립해왔다. 그로 인해 많은 통일인사들이 북한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또 사립은 아나미 불자가 남다른 것도 중앙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당했다.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였으며, 많은 이산 가족들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채 긴 세월을 살아왔다. 남북을 갈라놓은 금은 국민학생의 그것처럼 임의로 그려 놓은 추상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우리가 오랜 세월 배워온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역시 무용의 금으로 우리를 철저히 구속해왔다.

▲ 북한은 작년 여름 입은 수레로 인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이에 대해 '군량'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기아로 인해 체제붕괴 위임이 있고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등 반복적인 말을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성체관계 사건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를 비방하여 안그대로 조문과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사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세계가 앞다투어 북한의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으로서 부끄러워 따돌린다.  
▲ 올 4월에는 경주시 실무자들을 위해 1만명이 북한방문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우리 국민중 4명당 1명 꼴은 북한을 가보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계기로 남북 국민들이 자유롭게 만나게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남북이 이 자유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제 누가 먼저 이 유형·무형의 글을 넘는 용기를 지냈느냐가 문제이다.  
한승주

# “ 치열한 젊음, 기자가 됩시다 ”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대 상: 96학번  
부 문: 사회부, 사진부, 대학부, 문화부, 광고부, 만화부  
모집기간: 3월 20일까지  
전 형: 자기소개서 3월 20일  
면 접 3월 21일  
장 소: 이문, 왕산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문 의: 이문 - 961-4152, 4466, 4183  
왕산 - (0335) 30-4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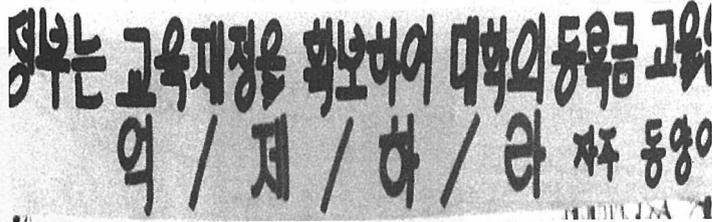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개강이후 학생회 '등투' 움직임

내부힘 축적하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학내에 '폭풍전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알뜰 총학생회는 스승...



이민희 기자

이해에 대해 용인캠퍼스 학원주...

또한 서울캠퍼스 의대발전추진위...

터 과학생회가 이르기까지 학생...

진행해 많은 한계와 오류를 낳았...

대학부

문신새긴 복도

개강을 맞아 캠퍼스 곳곳에는 새내기 환영...

낮아진 편입학 '문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무한정정속으로'...

비명문대 '추락' 위기

이외에도 본교의 경우 '영어'하...

한편 속출하고 있는 부직에서...

박근영 기자

96년 입시진단

이중지원에 몸살앓는 외대 추가합격으로 읊어간 입시전쟁

6.04.1의 경쟁률, 평균점 130.5...

의 예로정을 토로했다. 대학입학...

이 요구되는 때이다'라며 다각적인...

본교 교무처는 지난 1월 8일 (월)...

이와 관련, 추가합격에 의해 등...

이외에도 본교의 경우 '영어'하...

(96년도 전기전형 결과)

Table with columns for School, Department, and Admission Statistics.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and '용인'.

이와 관련, 추가합격에 의해 등...

한편, 서울캠퍼스 정영은 (교육...



송근우 (1)

21세기를 향한 外大의 의지 - 외국학종종합연구센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지역학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 연구원 초빙
1. 초빙분야 및 인원
가. 학제연구원: 0명
1) 연구지역: 동아시아, 북미,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포만,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17개 지역
2) 과 과: 비서학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지원서류
가. 이력서 (전공분야 및 진학희망 분야)
나. 연구원: 0명
1) 해당분야: 영어, 불어, 독어, 라틴어, 서반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폴란드어, 튀르키예어, 헝가리어, 체코어, 유고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29개 언어]
2) 과 과: 비서학적 이상의 학제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3. 지원처: 본 대학 연구협력처 (☎ 961-404-4387)
4. 지원기간: 1996. 3. 20(수) ~ 3. 22(금) 17:00까지 (후원금: 100만원, 여비: 170만원)
5. 연락처: 본 대학 연구협력처 (☎ 961-404-4387)
6. 문의처: 연구협력처 (☎ 961-404-4387)

# 독도문제, 한미일 군사관계에서 일본 역할 증명 미, 한일간 뿌리깊은 갈등 부추겨... 정세에 자주적 대응 요구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의미도 모른 채 따라부른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96년, 다시 우리는 독도가 어째서 우리땅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한일합방 이후 제대로 된 역사정신을 회복하지 못한 부끄러운 나라, 더 이상은 강대국의 저울질에 움직여서는 안된다.

독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이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진단해본다.

권필자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반도 민중의 요구를 참지하게 무시되었다. 둘째,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한 단체와 개인의 역할을 부정함으로써 조선공산당 등 좌파는 물론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 등 민족주의 우파의 역할까지도 부정되었다. 셋째, 일제 하에서 식민지 지배에 봉사했던 친일관료기구를 부활시키고 친일 인사들 중흥하여 군정임무를 수행한 결과 친일세력이 해방된 조선에서 다시 지배세력을 지켰고, 넷째, 미군정은 자신이 세계전라와 친일세력의 이해관계를 기초하여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민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족분단을 조장하고, 민중에 대한 탄압 위에서 분단정권을 수립하고 한국전쟁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한반도를 냉전전라의 실험장으로 삼고, 정통성을 갖지 못한 역대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행위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행위가 열명으로서의 행위라면 열명의 주체가 누구이며 열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반민중적 억압세력의 행위를 지원한 한국 민중의 진정한 열명은 아닌 것이다.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가치에 대한 질문은 한국현대사의 근본적인 화두이다. 한국현대사에서 미국은 아누스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미국은 한반도를 북한의 공산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자유를 지켜준 고문 행령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스국가를 침탈하는 총독화한 강제국이자 재구축주의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 점령군으로서 미군은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에서 미국이 두개의 얼굴로 존재하는 이유는 특히 미국이 행령의 통치로 존재하는 이유, 미국을 행령으로 인식하는 세력이 완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행령통치자들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의 대다수 민중들이 행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쳐 광우전쟁에 이르는 현대사의 질곡 마미마미에 배어있는 미국의 역할을 행령의 관례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아누스의 얼굴처럼 행령의 이미지는 재구축주의로서의 본모습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아닌가? 이 가면속에서 미국과 비국으로 교묘한 한국현대사의 많은 의문점들이 녹아 있으며 이 의문점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한미관계의 본질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1948년의 이승만 단독정부의 수립과 분단으로의 행진은 이러한 점령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단독정부와 분단만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나 일선재 MBC-TV를 통해 방영되었던 ‘여명의 눈동자’에서 나타난 엄청난 갈등과 살육과 고통이 그 속에 숨어있다. 이 갈등은 다시 1950년부터 6.25전쟁을 촉기하면서 한국전쟁으로 재연되었다. 혹자는 1949년의 해방에서 시작되어 1950년 한국전쟁의 유전으로 일단락되는 6.25의 시기를 ‘회의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로 이 시기에 미국은 우리에게 행령의 얼굴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일기가 미국의 점령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임을 이해한다면 미국을 행령이라 부르지는 않게 될 것이다.

## 1945~1953 사상적 갈등으로 ‘회의의 역사’

한국전쟁을 끝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점령정책은 끝났지만 정치 군사적 개입은 계속되었다. 이승만정권에 대한 개입, 4월혁명 직후의 상황에 대한 개입, 박정호 군사쿠데타에 대한 개입, 그리고 군사쿠데타의 승인 등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짙은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개입은 주로 간접개입의 방식을 선호했지만 이승만정권의 승인을 표출한 박정호의 피살을 계기로 초래된 격동의 상황에서 광우전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함으로써 행방 직후의 직접적 인점령정책을 재연했다.

광우의 회의의 대가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대이전 병행부의 신속한 지지도 미국이 한국전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 약소국 민주화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한 적 없다

혹자는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근거로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미국이 이승만 독재정권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4월혁명의 상황에서 군의 중립을 유도한 일, 박정호 정권을 비난하면서 유신체제의 붕괴에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일, 6월 항쟁 과정에서 군의 투입을 차단해서 6.25전쟁에 작용한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반면 더 큰 민간살을 은폐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거부하는 미국의 세계전라의 차원에서 친미정권의 인정보다는 각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이 약소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 독도문제 일, 군사력 증강 능동적 대응 요구

이러한 특성은 국내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군사적 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 외에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작용한다. 그런 만큼 한국 땅에 미군이 많았거나 주둔하고 있고 미군기지가 어디에 있는냐 하는 문제가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라는 사실과 같다. 이 영향력은 남북분단과 남북대결구조에 의해서 더욱 증폭되고 정당화된다. 한일간의 뿌리깊은 역사적 갈등구조 역시 여기에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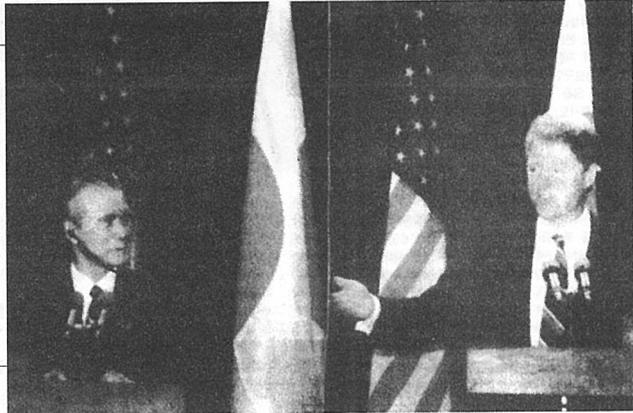
한반도 주변정세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냉전체제 하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구소련에 대항하는 냉전벨트의 형성을 위하여 한미일 삼자군사동맹체제를 추구했으며 이 체제하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본 역시 이에

맞추어 자위대의 정복력을 증강하는 등 역할을 강화했다. 1950년대 이후 연례행 사처럼 제기되었던 독도문제가 다시 부각된 배경 역시 한미일 삼자동맹체제 아래서 일본의 역할 증대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독도문제는 일본과 관련된 단순한 영토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독도문제 일, 군사력 증강 능동적 대응 요구

탈냉전 이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자국 중심의 질서구축을 위해 각축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전략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전략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각된 독도문제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두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정세변화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과 단결된 힘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정 대 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



특별기고

## 독도문제, 전략적 대응해야 역사인식 작업·일본내 진보세력과의 연계 필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더불어 제기되었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최근 한일관계는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우리 파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기도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제기되면서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정치인에 의해 국민감정을 자극시킴으로써 점점 분노가 격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일본이 군국주의적 팽창 의도를 가지고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화하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도 역사적인 문제를 마친기후로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인식이 정적으로 잘못되면 것은 아니다. 한일관계 갈등의 근본원인은 대부분 일본의 과거 청산에 대한 불충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일본 보수세력의 사상은 한일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한일합방을

비롯한 과거의 제국주의 사대를 정당화하는 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과거역사에 대한 성찰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최근 한일관계에 문제가 되었든 무리야마 수상의 한일 합방조약의 책임성 주장이나 에노 총무장관의 식민지 지배 긍정론의 주장은 새로운 발언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정국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움직임을 선금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1990년대 이래 한일관계 사에 있어서 새로운 현상은 미화자라, 호노카, 카미후, 히타, 다케후타, 코오 등 기 외교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조심스럽게 표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당은 중도로 한 진보파의 자진인 그룹들도 과거 한국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테스크포스 국민연립이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보수정치가들은 한일합방을

감정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려 일본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새로운 ‘역사인식파’의 입지를 좁혀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는 한일관계를 감정적으로 치닫하기 보다는 그 내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준비를 통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책임 차원에서 한일합방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의 기구의 창설과 일본의 역사인식을 위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정치체제를 통한 보수우익집단으로 파악하는 시점에서 탈파괴적인 의식의 시대전환 및 정당과의 광범위한 연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셋째, 다른 아시아 국가의 공명성을 통해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공동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진 창 수  
(동경대 정치학박사)

HALA
2000년대 세계적기업으로의 성장
MANDO

축·하·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의 기회를 앞둔 당신에 축하드립니다. 직장, 그 사회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입니까? 이제,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쳐갈 무한의 바다를 만날 것이며, 인생의 터전이 귀중한 친구들을 사귈 것이며, 금전과 비탈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쌓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원래의 당신을,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가질 것을 축하드리며...

도전과 열정의 기업- 만도가 당신의 꿈을 소중히 합니다!

**ROTC 및 대졸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부서 및 응시자격

모집부서	인원	응시자격
이공계	10명	1. 대학졸업(공학계열) 또는 2.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3.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4.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5.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6.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7.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8.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9. 대학원졸업(공학계열) 또는 10. 대학원졸업(공학계열)

2. 전형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

5. 기타

만도기계(주) 인사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길 11, 11층

전화: 02-556-1111

팩스: 02-556-1112

이메일: mandog@mandog.com

www.mandog.com

**만도기계(주)**



# 모닝글로리 황포 어디까지 가나?

## 교내 문구점에 대한 개선 선행태야



모닝글로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싼 것 같아 이용할 때마다 거립치면서 그런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자보 용지는 다른 문구점보다 50원, 악세사리는 열 권시원보다 500원씩 비싸요. 특히 인형, 악세사리, 액자 등은 주인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데 이런 경우 가격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요”

한 달 동안 모닝글로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친구 한 여학생의 말이다.

실용 과연 맞이나 아닌지. 하지만 학생들은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싼 것 같아 이용할 때마다 거립치면서 그런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변에 문구점이 거의 없어서 독립기업처럼 운영하다 보니 부담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닝글로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이를 끌고 가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분명한 교내에 문구점이 있는데도 제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화에서 불이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교내 문구점은 무엇이 문제인가.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한 종류의 물품에 3-4개 정도밖에 선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의의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의 물품을 구입하기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이용 빈도는 작아지고 학교 밖에서 찾게 된다.

이처럼 물품이 다양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바로 물품을 비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생활합평 시평

## 하나됨을 위한 남북공동 개최

‘월드컵-월드컵’ 그 순간의 감격은 MBC와 함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싸움이라도 벌어질 듯 최근 방송국의 모습에 비껴가 활기를 주며 바뀌고, 코미디로든나 쇼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한 소리는 바로 ‘월드컵은 한국에서’이다. 2천3백 월드컵축구대회 개최권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에서 2002년 베를린 결선에서 싸움까지 걸쳐 그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을 낚는 거위라는 말이 있듯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의 엄청난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도 크게 작용했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일본이라는 이유라도 이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예원이 모든 국민들이 민족단결로 이르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은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상반기에는 건국이념을 지키는 월드컵 공동개최의 논의까지 이끌었다. 우리는 지난 9년 일대에서 열린 대구대회에서 남북이 단합하여 우승했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다. 그 밖에 남북의 단결을 인제나 민족의 모든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베한가. 북한 교호정의 망명을 바라보는 우리는 많은 이가 심히 불만인지는 불안함으로 북한 황포공을 점치고 있는 것은 않은지 생각해 보자.

우리의 이러한 틈을 타고 일본은 한반도 제 5조를 개칭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침략을 미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내뱉으며 한반도 지역적 평화노선을 전개해 오고 있는 일본

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걸러 나가야 할 것은 바로 민족의 단결을 통한 것이다. 민족 경쟁력이다. 외세기를 향한 민족 경쟁력 유치를 제기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흘러나오게 해야 할 한마디를 덧붙이자. ‘월드컵은 당연히 남북 공동개최!’

**우리 고을 이름 찾기**

“우리말 속 일본말”에 이어 외대학생들은 우리말 바로 쓰기라는 커다란 주제에서 출발하면서 일제의 조선말 말살작업으로 인해 격하되거나 사라진 우리 땅 이름을 찾아, 주제심 바로세우기 2번째 이이기를 열어나오자 한다.

권지자

**1) 독도와 죽도(다계시마)**

-일본이 외도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설 비위성으로 이루어져 나무가 없는 무도(무도)로 독도(獨島), 즉 대마리섬, 줄여서 대마(大)라 부른 것을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본에 강제 편입시키며 앞날 대마(大) 즉 (竹)를 붙여 죽도(竹島)라 칭하고 버렸다. 그러므로 일본인들의 죽도라는 이름 자체가 허위 사실이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말 가들름)

일	월	화	수	목	금
아침방송 08:30-09:00	아침의 행복 & FBS 아침뉴스				
낮방송	10:10	10:15	10:20	10:25	10:30
	FBS 코브라	주인 뉴스초점	FBS 세상사	FBS PLUNCH	FBS 종합뉴스
12:30-1:00	15	15	15	15	15
	동승동 배미강	젊음의 가파르	Rock을 찾아서	FBS초대석	
저녁방송 5:00-5:30	25	10	10	10	25
	노래나 2000	젊음의 가파르	가파르뉴스 TV	PD논단	FBS생방송
(생상)	15	15	15	15	
	마바라비서	직면과 넓은세상	FBS생방송	승은노래가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08:30-09:00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점심	12:40-1:15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오후	4:00-4:40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문화응답**

**책**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이 책은 해방 후 친일부역자 처단의 실패, 4월 혁명 이후의 반민정권파 처단의 실패, 5.18 광주 학살책임자 처단의 실패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평가하면서 그 분의 함의 뿌리가 역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신문사/7,500

**생활도서관 추천도서**

**참된 시작**

‘참된 시작’은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에 이은 두 번째 시집이다. 노동의 새벽이 80년대 우리 시문학사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이정표를 세운 시집이라면 ‘참된 시작’은 단연 그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다른 변화와 진화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탁박가 흥된 시집이다. 소련방이 붕괴되고 현실사회주의 운동이 실형적 무력감과 이념의 말무속이 되던 가운데 그대도 여전히 2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결론

**박노해 시집**

박노해 지음

**참된 시작**

박노해 지음

**녹색 경제학**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자연 과학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경제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며,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지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의 현실 해결방안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어는 이의 더미와 환경문제에 대해 경제학이 다룰 수 있는 범위와 한계, 경제학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의 부담을 이르는 경제학 논리는 환경 파괴적이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자연 과학의 지식이 필요하지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가 경제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며,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지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문제의 현실 해결방안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지어는 이의 더미와 환경문제에 대해 경제학이 다룰 수 있는 범위와 한계, 경제학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의 부담을 이르는 경제학 논리는 환경 파괴적이어서

구분	A4시구	B4시구	C4시구/서서
월(11월)	뷰쇼(소스) (₩1,000)	두부만강계 (₩1,300)	담계장 (₩1,400)
화(12월)	불고기 배반 (₩1,000)	순두부찌개 (₩1,300)	카레라이스 (₩1,100)
수(13월)	오징어덮밥 (₩1,300)	돈가스 (₩1,500)	김치찌개 (₩1,300)
목(14월)	갈매기 (₩1,300)	참치찌개 (₩1,300)	소고기덮밥 (₩1,300)
금(15월)	김치볶음밥 (₩1,300)	육계장 (₩1,400)	두부만강계 (₩1,300)

(주: 생생합평조합·후무투 후생과)

구분	주식	중식	석식
월(11월)	메운소고기떡볶이 (₩1,200)	고기떡볶이 (₩1,200)	햄볶음 (₩1,200)
화(12월)	살랑탕 (₩1,500)	육계장 (₩1,200)	소고기떡볶음 (₩1,200)
수(13월)	만두국 떡볶이 (₩1,200)	김치 떡볶이 (₩1,200)	해물탕 (₩1,500)
목(14월)	떡볶이 (₩1,200)	돈육김치찌개 (₩1,200)	소고기떡볶이 (₩1,200)
금(15월)	소고기떡볶이 (₩1,200)	떡볶이 (₩1,200)	햄스테이크 (₩1,200)
토(16월)	떡볶이 (₩1,200)	생선스 (₩1,500)	

\* 큰 식단은 물론 수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문화 - (1) 태극

### 복합민족국가만이 갖는 다양한 음식문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생명유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며 사회적으로 인간 사이의 교류와 친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류는 그들의 생활 환경에 서서 맛 좋고 먹음직스러운 양질의 음식 조리를 연구 개발하는데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상으로부터도 그 고유의 조리법을 전수 받아 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전통 음식은 그 민족문화의 상징이며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태국은 지리적으로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으며,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으로 인해 옛부터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이루었다. 게다가 역사에도 단 한번도 전란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태국은 오랜 세월동안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수 있었다. 이런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서 태국은 식량 자급률도 높고 맛있고 질 좋은 음식을 즐기려는 식도의 문화가 일찍 발달할 수 있었다. 태국은 긴 민족의 이동과정에서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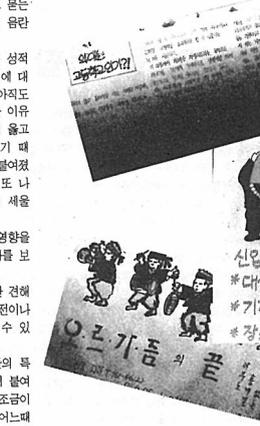
족과의 동화와 통합을 거듭하며 복합민족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음식문화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민의 나라인 중국과 인도, 말레이, 크메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각종 향신료와 야채들을 사용한 국물이 진한 ‘카레’의 일종인 ‘렝’ 종류의 일부가 인도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고, ‘주이 띠어우’, ‘바미’의 국수류, ‘끼요’, ‘파빠노’, ‘카놈’의 만두류, 찜지 않은 각종 볶음 요리와 담백한 각종 탕류, ‘후크’ 그리고 ‘무담’ 등의 오리고기 구이와 돼지고기 구이 등은 중국 음식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며, ‘취이’, ‘탐임’, ‘탐’, ‘방카어’ 등의 계란을 재료로 조리한 달고 촉촉한 탕의 단 파우서는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것이다.

태국사람들은 주식으로 쌀밥을 먹지만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앙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쌀밥을 먹지만 북부 지방에서는 옥류밥이 더 선호된다. 그들은 이 두 가지의 토양이 척박하여 쌀을 재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 학내 대자보 문화위원회

## 바람직한 대자보 문화와 동아리



바람직한 대자보 문화와 동아리

바라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외대 축구부의 경우는 각과의 특성상 나타내는데 민족의상을 그려 넣어 옆으로 보아 소위인형 보일 정도로 학생들을 친숙하게 다가갈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민족악예반의 경우는 대자보보다 동아리를 특성하는 그림의 특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해갈의 경우도 민족악예반인 만큼 재미있고 인화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새롭게 획기적인 대자보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부정이나 학부생 등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을 알리는 데에도 대자보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자보들은 동아리 광고 대자보보다도 많은 것이 있는 것이다.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대자보 제작의 성의는 좀 더 떨어진다느는 편이다.

대자보는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읽히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이 있었겠는가? 단순히 내용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친숙하게 다가갈려는 동아리들의 노력도 다른 대자보에도 이어질때 학내대자보 문화는 향상 될 것이다.

김남근 기자

구분	A4시구	B4시구	C4시구/서서
월(11월)	뷰쇼(소스) (₩1,000)	두부만강계 (₩1,300)	담계장 (₩1,400)
화(12월)	불고기 배반 (₩1,000)	순두부찌개 (₩1,300)	카레라이스 (₩1,100)
수(13월)	오징어덮밥 (₩1,300)	돈가스 (₩1,500)	김치찌개 (₩1,300)
목(14월)	갈매기 (₩1,300)	참치찌개 (₩1,300)	소고기덮밥 (₩1,300)
금(15월)	김치볶음밥 (₩1,300)	육계장 (₩1,400)	두부만강계 (₩1,300)

(주: 생생합평조합·후무투 후생과)

문학

● 문예인포지키

- 1. 꽃다지 구속
- 2. 총칼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의 문예기획사 원용호씨 구속

민예총, 전면적인 대응 방법 모색



94년 '희망세 전열'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사건 이후 정부는 문예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꾸준한 열정(?)을 보여 왔고 드디어 올 초 '꽃다지'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보에서는 두번에 걸쳐 꽃다지 구속 상황과 이후 경과,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문예인권 탄압사를 다루기로 한다.

편집자

지난 2월 3일(토), '바위처럼' 등의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의 대표 이은진씨와 그동안 민중가요 제작, 보급에 앞장서온 문예기획사 원용호(서 울매재, 민매, 좋은 세상 대표)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갈까야", "반미출정가", "부사의 한글" 등 총 36곡의 노래가 반미 반정부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용호씨는 이를 제작, 유통시켰다는 이유이다.

이에 한국민족예술인연합(민예총)의 기획 실장 최준씨는 이번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4월 총선을 위해 중산층의 레조컬플렉스를 자극하여 공민반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있을 임궐평정에 대한 문화선전 역할을 먼저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민예총은 '예술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예총 관련 각 단체단체들과 함께 이번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민예총은 '창작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공원에서 구속 예술인 석방을 위한 공원이 지난 2월 8일(목)부터 날마다 이뤄지고 있다.

꽃다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안치환, 노래마를 들이 구속자 석방과 문예창작의 자유 등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 공연은 앞으로도 무기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공연에도 각 대학내로 찾아가 좀 더 대중적인 투쟁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예총의 최준씨는 "정부가 민중가요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탄압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단순히 꽃다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문예활동들을 억압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일찍 예경이다"고 이번 꽃다지투쟁의 의의를 밝혔다.

김남국 기자

□ 꽃다지 서기상씨를 만나 "구속자 석방위해 항상 공연을 갖겠다"

이은진씨와 원용호씨를 비롯한 구속 예술인 석방을 위한 거리공원이 지난 2월8일부터 최근까지 종로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 속에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연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꽃다지' 팀장 서기상씨를 이번 공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 보았다.

이번 공연의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무엇인가?

- 원용호, 이은진씨 석방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황석영, 박노해씨등 이전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다른 문화 예술인 석방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문예창작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이번 공연의 최종 목적이다.

거리공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꽃다지' 뿐만아니라 민예총에 속해 있는 모든 문예단체들이 함께 한다. 따라서 노래, 춤,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리공연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공연계획은 어떻게 되나?

- 우선 권진경, 안치환, 윤도현씨 등이 거리공원에 참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각 대학의 단체나 노래패들도 이번 공연에 동참했으면 한다(연락처: 743-5870). 그리고 이번 공연은 우선 구속자가 석방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될 것이다.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마당예술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계속 계획이다.

서울캠퍼스 사진동아리 '앵글스' 전시회 열어



예총회관에서 전시회를 갖기 시작한

문화단신

지 올레로 20년째가 되는 사진단 앵글스(ANGLS). 그들이 예총회관에서의 교외 전시를 마치고 지난 6일(수)부터 9일(토)까지 교내전시장에서 제 17회 신인전을 가졌다.

지난 1년 노래의 산물인 이번 전시를 통해 자기만의 스타일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최용대(상경·경제2)군은 "전혀 다른 창조. 전혀 다른 상황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자기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연극 '반도와 영웅' 무대에 올라

연극은 인도 영웅표지에서 양철성이 라는 조선인과 2구의 일본인 권이 펼치는

는 정면으로 시작된다. 일제시대 정면 의 외해 래플양장전에 참전하게 된 병 법한 인간의 피란민정안 삶과 죽음. 양 철성이라는 인물이 살기 위해서 행한 파렴치한 행위와 그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몸부림과 일본군주위자들의 정형인 아오카와의 대조를 통해 연출자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역사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황폐화되고 희생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모든 인간은 평범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일러 준다.

일시: 3월 19일(토) 까지  
장소: 국립극장 소극장  
문의: 274-1151

Why 러니~ by 만화도인

원작 by 05/Park, Joo, Yong

중요호... 드디어 끝이 그리던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집과 학교만 왔다갔다하던 딱 저어 생활에서 벗어나...

헤어 댕

그동안 못 배울도 마시고

내 머리로 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

안돼!

엄-? 뭐가 문제???

저울한 대학 생활 1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 아까워!

고등학교 2학년 기숙사 생활이 숨겨 놓았던 꿈을 열 수 있게 해 주었어!

그리고 우리 외에는 그 꿈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어!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새내기의 좋은 친구로...



노영호 (해의문화비전, 서양·독일이2)

작년 이맘때 정발일 곳을 찾지 못하던 나에게 편안 한 휴식처가 되어준 곳이 있다. 지금은 나의 가슴속 한 귀퉁이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 되어 버린 그곳. 물론 내뿐만 아니라 많은 외대인들의 가슴속에 한 울금씨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곳.

입학하기 첫 처음 둘러보았을 때의 마네르바 동산은 그저 그렇고 그런 하나의 콘크리트 건물처럼 등장한다 는 느낌을 받았었다.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아 생동감을 느낄 수 없는 인공호수 같은 그러한 느낌. 그렇지만 마네르바 동산은 무심히 받길 닿는 대로 거뒀 나에게 내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왔고, 새내기 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일어난 약간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달래 주는 좋은 친구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새하기를 맞이하는 지금의 나는 이전과 다른 실재의 무척이나 발전하였다. 마네르바 동산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던 C·C(Campus couple)들의 다양한 모습들, 종 물재의 신명나는 어우러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열정적인 태도들, 그리스의 지혜의 여신에서 따온 미네르바라는 명칭처럼 진지한 학문탐구의 장을 열어나 가는 이여수들의 모습들, 그리고 평화롭게 막을 쏘

작년 아메리칸에 빠진 나와 친구들은 복잡한 식당에서 벗어나 원래 벤치에 앉아 밥을 먹기도 하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물론 과친구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문제와 인생에 대해 논했던 그 기억들은 정말 소중한 기억이 남아 있다. 나는 가끔씩 강의가 없는 시간에 홀로 벤치에 앉아 마네르바 동산의 외곽을 비추는 거울의 형상을 띠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긴다. 먼지 쌓인 거울을 닦아내듯이 마네르바 동산을 좀더 깊이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진정 외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지요. 마네르바 동산에 관한 선배님들의 추억거리와 재미를 듣는 것과 함께 우리 외대인 자신들 스스로 만드는 재미 매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마네르바 동산은 지금도 세로로 새겨지는 발자국들을 가슴에 안으며 더 많은 삶의 가치들을 보여어 우리 외대인들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다. 누군가, 이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곳의 반지름을 재을 자들은, 마네르바에서 또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새내기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HYUNDAI OIL REFINERY CO., LTD.

OILBANK

"Near In The Future"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 없는 자에겐 죽음뿐인가



###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국민생활엔 관심없는 후진 정부

작년 11월 인턴 아담도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장애인 노점상 이타리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한일병해충조립위원회 김시자씨의 분신자살, 용인수지개발 지역의 신원숙씨의 죽음 등 노동자와 도시빈민들의 충격적인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고 21세기 복지사회를 주창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강제적으로 목숨을 버린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갑자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듯 하지만 그 실질적 수혜자가 소외계층, 서민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대외적으로 시장개방과 대내적으로 선제발파인 신보수주의의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민족경제는 더욱 파헤쳐지고 매향적인 재벌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기업가 사이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지 측면을 중심으로 김영삼정권의 정책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예산총액의 10%미만이고 이는 대한국의 17%, 일본의 20%, 미국의 25%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소득 국가 수준과 비슷하다. 국민생활상선에

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은 선진국 수준의 1/5 미만인 1/10수준인 1.5%에 불과하며 OECD가입한 나라의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다.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 등은 한국사회복지의 후진성이 더욱 드러난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를 도입한 141개국 가운데 130번째로 도입하였으며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89년 7월에야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경우 기업과 지역의 의료보험을 분할하여 전국적 차원의 운영을 막고 있으며 의료보험적용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89년 국회에서 본인도 찬성하여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으나 당시 노태우씨의 거부권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의료보험법을 대통령이 된 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40여개국과 67개국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삼보험과 가족수당제도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전산업, 전노동자에게 균등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92년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시행을 미흡한 상태로 두고 있다. 영세기업에 대한 생활보호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련 정책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민(생활보호자)은 전국민의 5%수준(2백만)이다. 빈곤율이 5%대인 세계적

복지국가이나, 그 적용대상은 월수입 18만원, 재산 2천만원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재산이 2천만원이 넘거나 한달에 25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은 영세민이 아닌 것이다.

최근 말문을 밟고 있는 재개발사업(주택사업)을 살펴보면도 하자, 김영삼정권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35만호의 공공주택을 정하고 공공임대, 공공보양, 근로자 복지주택, 사회주택 등 유형별 분류표현은 나오지만 그 분류에 따른 분류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도시빈민의 주거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재개발지역 특히 세입자들에 대한 무대책과 강제철거로 이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공공공공임대주택과 가용주택의 설치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부경찰과 철거장대의 무차별적인 폭력뿐이며 가족주동마저 임의로 부당하고 있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김영삼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여타의 정치, 경제부문과 비교해보면 특히 보수적이고 퇴행적이다. 이는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중의 삶을 미연하는 반민주적인 속성을 탈피하지 못한 정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조양익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맹 민생국장)

### □ 헌전 노민주 집행위원 김동성씨를 만나

## “못다한 노조민주주의의 꿈, 이루겠다”

김시자씨의 분신까지 이어졌던 헌전노조의 현상들은...

“대부분의 공공노조가 그렇듯이 헌전노조도 대부분의 지부가 약 50년동안 간선제에 의한 어용노조가 집결해 왔다.

간선제 하에서 노조의 민주화를 이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노조의 대의대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은 가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대의위원들의 2/3 이상은 회사측의 임장을 따른 민주노조이다. 나머지 1/3정도의 간부들은 간부노조의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회사와 어용노조의 방패와 탄압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상당한 제약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헌전노조는 (어용)노조간부들중에는 20%이상 엄밀한 경우로 하겠다.

김시자씨의 경우도 약 6년동안 노조 집행위원직을 수행해 왔던 헌전노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으나 헌실의 제도적 규제가 뚜렷하지 않음을 겪어야 했다.

헌전 김시자씨사태취위의 활동상황은...

김시자 열사의 분신이 있고난 뒤 대의원들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김시자 열사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노민주 추진위원회를 (노민주)가 구성되었다.

대역위의 활동은 소극적인 대역위원들과 헌전노조의 민주화를 추진하던 집행위원들 사이에 불협화음 충돌이 벌어져 대부분의 집행위원들이 구속된 상태

이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의 집행위원들이 남아 헌전노조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활동중이다.

헌전노조의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부딪히는 외부의 탄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60개의 헌전지부가 있다. 이들을 대부분은 어용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 노조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남 조립위원들의 감시와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소수의 헌전노조 민주화 추진세력에게 유·무형의 탄압을 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노민주 관련 문건을 절도하고 그들의 눈에 띄면 타지방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위서 작성, 부당사건 등의 징계를 받게 한다.

헌전노조의 민주화를 위해 노민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비중 있는 사업은...

헌전 각 지부별로 간부들에 대한 선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민주적인 후보를 내세워 어용노조의 경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노민주 활동을 벌여다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과 직선제, 지속적인 노민주 화해, 노조 조직원 확대사업 등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역공기단: 류영수기자

## 폭행·방화·살인 마다 않는 철거정책

지난 2월 5일(월) 새벽 5시 경기도 용인 수지택지개발지구에서 주민 신원숙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강제철거에 맞서 무력에 응박이 있던 주민들에게 철거장대들이 방화됨에 불을 질러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신원숙씨가 불길에 피해 18미터 방부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이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청이 철거세입자를 대한 대책없이 강추위에 강제철거를 시한한 결과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생활터전을 빼앗겼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도 지난 2월 9일(금) 철거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철거공사와 협상이 진행되어 오던 중 갑작스럽게 철거가 시행됐으며 더구나 이 날은 협상을 약속한 날이었다. 철거과정에서 임시 7개월 임산부가 철거장대에 맞아 출생이 끝난 딸이 허혈을 겪기도 했다. 국부총리령으로 동정기 철거지가 친포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진행됐으며, 어린이들 앞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등 인명사건이 장거를 하는 소위 ‘폭우가 철거’까지 동원됐다.

대주택에 비해 2-8배 비싼 800-1100만원이며 월임료도 30만원에 이른다. 이것은 허부에서 허부까지 철거세입자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전대, 전매할 수 없으므로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부기에 이용될 수 없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3년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공사기간 동안 철거세입자를 임시 수용할 수 있는 가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도시재개발법 32조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년 이상의 재개발 공사기간 동안 철거세입자를 걸러내고 배후고 있다. 가용시설을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므로 영구임대주택 건립과정을 같이, 감독할 수 있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철거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없애주고, 직장, 학교등의 생활권을 지켜주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감소, 가용시설 설치의 미비, 철거에 따른다는 공권력 투입 등 인권을 유린한 철거가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박병구 기자

##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 계획된 사건의 의혹... 신고 후 응급차 늦게 도착

“인간도 아니야, 살려 달라”고 하면서 사람이 바르 앞에서 떨어지는 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거인의 서서 쳐다보만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난 2월 5일(월) 새벽 5시 용인군 수지 2지구에서 백담동 200여명과 철거용역반원 100여명 및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하다가 주거권을 지키려 한 주민들이 철거장대 공동 생활을 하고 있던 철거민 2명(신원숙, 권미향)과 명지대생 1명(민석재)이 이어 대항하다 큰 부상을 입고 주민 1명이 병원에서 옮겨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토지개발공사가 철거 전문 용역업체인 호성개발에 2월말까지 철거완료로 계약했다.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주민의 반발이 더욱 커지자 급하게 된 철거용역업체는 강경하게 나가 끝내는 주민이 사망하기까지 이르렀다. 사건의 발생한지 열흘이 지난, 15일에도 철거에서 뒤내리다 사망한 신원숙(38) 열

사의 시신은 수일 후수일 병원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다. 병원의 주위에 여기저기 붉은 대포와 유인물 및 총알가드로 주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영안실안에는 그 동안에 연일 계속된 시위로 지친 몸을 잠시나마 쉬고 계산 받고 있었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예기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다. 영안실안 벽 역시 주민들의 억울함과 분노함을 토하는 대자보들로 도배를 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철거민이 떨어지는 주민을 받아가는 경찰복(40세)은 ‘철거에서 사람들이 안치되어도 철거민에 불을 질렀어, 거기 있던 냉창고의 프레임 가스카지는 바람에 불이 갑자기 번지가 되자 철거민’이 갖게 당해 혐모금을 들이치었다. ‘불이 올라가자 위에서 타던 사람들이 위험을 느껴 피아프를 버리고 내려오다 피아프가 뜨거우니까 18m 높에서 그냥 뛰어 내리기야’하며 그대 상황을 설명했다.

로 빨리 옮기기로 했다지만 사람이 죽는 상황까지 가진 않았을 거야”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갔다. 박지정씨는 ‘아직까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계획된 사건이 예요. 우리는 이래로 주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주대책과 피해 보상금과 리 및 책정 차비를 요구’한다며 ‘이 모든 요구를 들어 주지않는다면 장전세를 연기하면서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철거민이 뛰어내려 큰 부상을 입은 명지대생 안석재군 역시 “크게 다져서 부당하다”라고 가족 격정을 하며 “자본과 정권에 맞서려는 민중의 삶에 대한 불소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경인지역공기단: 박현우 기자

## WANTED, 21세기 콜럼버스!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립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보다는 남다른 꿈에 도전하는 시립 21세기 콜럼버스!

## 청구그룹은 21세기 콜럼버스들의 창의적 도전정신과 함께합니다.

남다른 사고와 남다른 꿈으로 건설, 유통, 물류, 방송, 정보 통신 및 금융지원을 위한 21세기를 향해 창의적인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젊은 그룹. 청구가 대학내 21세기 콜럼버스들을 찾습니다.

창의적인 봉사활동, 창의적인 탐험, 창의적인 전시회, 창의적인 팀워크...  
각 동아리의 성격에 맞는 창의적 도전이란 어떤 분야에도 좋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남다른 사고로 남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동아리들의 행사계획을 청구그룹으로 보내주세요. 정기적으로 1팀씩을 선발, 대학 캠퍼스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행사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 모집지역: 창의적 도전활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중인 4차세 대학 및 진단체 대학생
- 모집분야: 동아리 기획 및 활동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 행사계획서 1부, 학생과 승선서 1부
- 모집대상: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62-7 (우) 135-081 청구그룹사무실
- 모집기간: 21세기 콜럼버스팀 모집기간
- 문의전화: 02-551-4573



### 청구그룹

■ 등록금, 그 뿌리를 찾아

① 일반 사립대 재정구조와 예산편성의 문제점

# '앞서가는' 등록금, '제자리' 교육여건

## 땀뿜기성 지출예산... 돈 남기는 재단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라고 한다. 대학이 배출한 인력은 사회에 환원돼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던 명백해진다. 진정한 교육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수익이 있어서 한푼도 투자할 수 없다는 재단. 여기에 교육비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가세했다. 이런 정부와 재단의 논리는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등록금 인상률로 의욕적 대학교육재정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관례화되어 왔다.



사립대의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재정확보'의 고지를 향해 가나니 마라톤을 뛸때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그동안 사립대학의 재원과 대학공과국의 역할 정립으로 진행됐던 예산편성 문제점의 전전적 개선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권력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기 한다. 동년만들 대접 받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이에 보답하는 6월에 걸쳐 사립대학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생을 위한 경비(학생경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각 학교별로 분석한다.

편지자

최근 등록금 중 50%이 재단조성비였을 경우 96년에 90%인액으로 편성하면 실제 증가액은 4.4%에 불과한데 90%이 증가액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써먹고 있다. 또한 기계·기구와 비품·집기(예비비)는 물론 전기료 싼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높은 책정하는 방법으로 뺄기하고 있다.

있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교육부에서 납입금 중 20%를 학생경비로 지출하도록 했음에도 94년 납입금 중 학생경비는 전교평균 14.42%에 불과했다. 16.17%에 그친 한교외대를 포함해 95개 사립대 기준은 10.54%로 나타났다. 학생경비 5%는 94년 전교 평균 1.99%에 불과하다. 한국외대는 그보다 훨씬 적은 0.60%밖에 안됐다. 대형 한국외대는 법적으로 납입금 10%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학비편성은 10.54%로 법정기준을 넘어섰다.

사립대의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 대로 돈을 지출하지 못하는 하소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1.392억, 연세대 783억 등 전국 모든 사립대 대로 돈을 지출하지 못했다는 8.21%에 달했던 사실의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외대는 말한 일자만 94년 말만 19억의 남이 있다.

### 부족한 학생경비와 남는 재단 이월금

납입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도 교육여건은 예전과 다를바 없다. 실습기자재 확보율만 해도 여전히 5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한국외대는 총수입 32.48%, 장수기종 29.78%밖에 안된다. 물론 한국외대는 여학생수 및 여학생이 차지하는 다른 대학에 비해 월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 확보면에서 컴퓨터 1대당 학생수 43.1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부족하다. 그 뿐 아니라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중엔 낡아서 쓰지 못하는 것도 수주적이다. 교수학습률도 대부분이 70~80%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대는 물론 각 사립대가 교수들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학부제 시행으로 강의당 학생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기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납입금이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은 제대로 쓰지

### 사학경영자들의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정부가 잘못된 교육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 사립대 대학 공과보조금을 학교운영비의 100%로 늘리는 것, 대학총괄평가인정제를 개선하는 것, 국고보조금의 대학기 차등 지원정책을 폐지하는 것,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사립대 당국과 사학경영자들에게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 또한 사학경영자들과 사립대 당국이 등록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학재단은 수익을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수익을 기본재산을 늘려야 하며, 수익을 재단정리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래서 방정부담금 정입금 전액과 정정리금 전입금 전액이 재원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립대 당국은 편법을 통해 납입금을 고를로 더 이상해 오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그래서 납입금 인상률이 연간 1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업률 5%를 포함한 학생들 1년 납입금의 20%를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비용인 학생경비로 지급해야 한다.

### 전 동환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실장)

### 외대와 나

## 21C에 부응하는 인간형



박명석 (단국대 영어과 교수, 영어과 57)

태고로부터 인류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자에서 태어날 때부터는 노장을 끊임없이 웃으면서 하느님에게 일지된 하느님의 인류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지구촌에 사는 이웃들이 평화롭게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이루면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들간에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촌에 사는 이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치체계, 사고패턴, 비언어적 행태와 같은 외국어의 문화적 패턴을 익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이 통역할만한 것처럼 의욕하고 있는 세계화도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허물어 우리나라처럼 평등한 언어가 없고, 인구는 많고, 문화적 자원이 별로 없는 부족국가사회에서는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유능한 인재양성에 본연에 대한 사명과 좌표를 잘 알해 주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란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경제·사회·문화·모든 분야에서 국제 감각이 뛰어난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인재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인문교육을 필수적인 Classroom size는 어떠한가, 하급학년일수록 외국인 교수들 충빙에 확보하여 언어훈련을 하고 있는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비디오투 사형지 사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는가. 타국어학원 학기당 외국어 현지 교사를 개회하고 있는가 등 알고 싶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학생들도 항상 뇌리에 새겨 두어야 할 일이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첫째 의무는 학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외국어는 학교 교육이 교수기 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단한 자기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학년 세월에 논 감각할 사이에서 지나고 간다. 이불어학원만 사 한는 팔다보면 비뚤은 날에 말기후 빠지고 있는 격이 된다. 타이니셔부터 배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배우는 언어를 형식 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급이나 변화된 유능한 인재들이 아니라면 면서 대우를 받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허물어 우리나라처럼 평등한 언어가 없고, 인구는 많고, 문화적 자원이 별로 없는 부족국가사회에서는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유능한 인재양성에 본연에 대한 사명과 좌표를 잘 알해 주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란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유능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경제·사회·문화·모든 분야에서 국제 감각이 뛰어난 언어·문화적으로 다변화된 인재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인문교육을 필수적인 Classroom size는 어떠한가, 하급학년일수록 외국인 교수들 충빙에 확보하여 언어훈련을 하고 있는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비디오투 사형지 사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재정구조 개선없이 납입금만 5년새 두 배로 올려

88년 납입금 자율화 조치 이후 사립대 납입금은 매년 10~17%의 고율인상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94년 150만원 정도이던 인문·사회계열 납입금이 연간 300만원을 넘어섰으며, 이와·공과·예·체육계열, 의·치·약학계열의 납입금이 90년 200만원 수준이던 것이 94년에는 연간 400만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그렇다고 사립대의 재정구조가 나빠진 것도 아니다. 90년 73.4%이던 학생납입금 의존율이 94년 73.3%로 달라진 게 없다. 국고보조금이 늘고 있지만 미국의 20%, 일본의 15%에 훨씬 못 미치는 3%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학재단의 투자도 제대로 걸음이다. 재중대를 포함한 29개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인문도 안보고, 34개 사학재단이 지정사설비 전입금을 한

### 땀뿜기 지출예산

사립대는 학생들의 납입금을 인상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서슴치 않았다. 단적인 예로 실제 지출 수치를 낮추기 위해 예산에 포함시킨 행방기성 지출예산의 편성을 들 수 있다. 인건비와 재산조성비는 행방기성 지출이다. 94년 인건비로 312억을 쓰고도 예산에는 300억을 책정해 48억이나 뺄기 한 인건비, 94년 재산조성비로 33억밖에 쓰지 않았으면서 130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106억이나 뺄기 한 영방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사립대 당국 이월금과 학생경비 70~80% 인상권으로 제시하는 '지출예산 증가 요인'은 훨씬 더 뺄기하고 있다. 인건비만 해도 실제 신규채용할 교직원 수보다 더 높은 수를 신규채용할 것 처럼 하는 방법, 종재해야 할 퇴직예정교원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는 방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 재산조성비도

### 인문법

·민족의 혼이 담긴 검술을 배웁시다. 민족부에 경감을 배웁시다. 때: 늦은 5시(월-금) 곳: 운동장 (인문부에 경감)

·외국고사반 입실 시험을 공고합니다. 때: 3월 23일(토) 곳: 3001 1교시: 영어(10:00 - 12:00) 2교시: 논문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중 택1 (13:00 - 15:00) \*1학년은 영어 과목만 봅니다. (외무부 연구실)

·창년 서양어대에서 함께 일할 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서양어대 학생이면 누구나. 연락처: 본관 1층 서대 학생회실 961-4065 (창년 세)

### 잡문정 정부정책이 파행의 원인

정무도 사립대의 부당한 납입금 인상과 관련돼 책임이 있다. 교육의 수혜자를 학생으로 국한시킨 '수혜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유예해 적용한 것이 대표적 인데, 이것은 결국 학생들의 납

### 이중 입시지옥

○-학부제가 물고도 또한나의 광망!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2종 3수험생들이 나타났다는데 학부제 모의고사와 학생들, 2000년 전종 선택시 상성순으로 전종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데 - 결국 한 세대가 입학과 동시에 군사대학을 선택했다길래 본지가 알아본 즉, 3는 4순다유-

○-올봄에 바야 바야 때! 요즘 전국 도시 곳곳에 전경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 많다는데 -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그곳이 철거장이다. 등하교길에 보는 철거장

### 이중 입시지옥

○-학부제가 물고도 또한나의 광망!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2종 3수험생들이 나타났다는데 학부제 모의고사와 학생들, 2000년 전종 선택시 상성순으로 전종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데 - 결국 한 세대가 입학과 동시에 군사대학을 선택했다길래 본지가 알아본 즉, 3는 4순다유-

○-올봄에 바야 바야 때! 요즘 전국 도시 곳곳에 전경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 많다는데 -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그곳이 철거장이다. 등하교길에 보는 철거장

### 크로니클

패널이 호소하면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호소하였는데 실의 될 학생들도 기쁘게 하는 것은 신념, 철거민은 사람도 아닌 (성)

○-요즘 강가에 귀산들이 출몰한다는 소문 알려 놀라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야생동물이 공원으로 조조해 갔다고 발표한 상성순고지역을 사고 유가족들에게 줄돈이 모자라 상성순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정정발표하였는데 - 전인공농장 이같은 소리에 상성순영호 열받아 이슬에 내렸다고

### 멍길 뉴스

○-이제 요즘은 아예 뉴스만 시켜달라 관바도 영상이 얼굴이 나온 다. 돈 꺼여 오시라들 푸르프팅팅 태극마크를 달고 말아.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말아여 저 무식한놈의 총아는 우리 이강남은 비록시장이 이를 나갔다고 축하해 나면 누구는 매일 나와도 총신 아니 모라미디 잡아가지는 없구 입! 아무래도 요상하네. (윤)

## 비둘기협판

### 이문법

**□ 알립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무료 인터넷 BBS인 KIDS에 외대보도(HUFSan)와 공용 ID가 개설되었습니다.

접속 전화: 02-526-5533 (2.8kbps)  
주소: kids.kotel.co.kr (128, 134, 2, 51)  
http://kids.kotel.co.kr

\* 자세한 내용은 메일을 주시기나 외대 보드에 메포를 남겨주세요.  
mipsan@kids.kotel.co.kr  
cs001@san.hufs.ac.kr  
tris@chollan.daum.co.kr

(KIDS)

·오픈 총장실이 열립니다.  
때: 3월 13일(수) 늦은 5시  
곳: 총장회의실 (총장비서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개인의 일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때: 서울 3월 14일(목) 늦은 2시  
용인 3월 12일(화) 늦은 1시 30분  
곳: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신청방법: 찾아오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통역협회에서 제71기 전기 신입회원을 선 발합니다.

응시언어: 외대에 개설된 모든 언어  
접수기간: 3월 4일(월) - 3월 18일(월)  
접 수 처: 학과 203호 통역협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역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협회)

·축구부에서 알립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거리는 96학번을 모집합니다.

곳: 상경대 지하 축구부 방  
연락처: 961-4164 (축구부)

**□ 축하합니다.**

·90 경경식(태국 4)선배님이 (주)세림의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개인의 일반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통역협회에서 제71기 전기 신입회원을 선 발합니다.

·축구부에서 알립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거리는 96학번을 모집합니다.

·90 경경식(태국 4)선배님이 (주)세림의

·학부제 모의고사와 학생들, 2000년 전종 선택시 상성순으로 전종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데 - 결국 한 세대가 입학과 동시에 군사대학을 선택했다길래 본지가 알아본 즉, 3는 4순다유-

·올봄에 바야 바야 때! 요즘 전국 도시 곳곳에 전경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 많다는데 -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그곳이 철거장이다. 등하교길에 보는 철거장

·패널이 호소하면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호소하였는데 실의 될 학생들도 기쁘게 하는 것은 신념, 철거민은 사람도 아닌 (성)

·요즘 강가에 귀산들이 출몰한다는 소문 알려 놀라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야생동물이 공원으로 조조해 갔다고 발표한 상성순고지역을 사고 유가족들에게 줄돈이 모자라 상성순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정정발표하였는데 - 전인공농장 이같은 소리에 상성순영호 열받아 이슬에 내렸다고

·멍길 뉴스

·이제 요즘은 아예 뉴스만 시켜달라 관바도 영상이 얼굴이 나온 다. 돈 꺼여 오시라들 푸르프팅팅 태극마크를 달고 말아.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지만 말아여 저 무식한놈의 총아는 우리 이강남은 비록시장이 이를 나갔다고 축하해 나면 누구는 매일 나와도 총신 아니 모라미디 잡아가지는 없구 입! 아무래도 요상하네. (윤)



